

 인천광역시	보 도 자 료		경 축 재외동포청 개청
담당 부서 도시디자인과	배포일자	2023년 6월 2일(금) 총 4매	
	담당자	• 도시경관팀장 정두용 ☎440-4781 • 담당자 김홍원 ☎440-4783	
사진(이미지)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참고자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보 도 시 점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의 도시디자인 발전 위한 국제포럼 열려

- 한일 도시디자인전문가 교류회 개최 -

- 인천의 인프라·잠재력 소개, 한일 전문가 모여 인천시 당면 과제 논의 -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6월 1일, 인천도시역사관에서 ‘한일 도시 디자인전문가 교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한·일 도시디자인전문가 교류회’는 (사)더나은도시디자인포럼(PUDA)과 일본의 도시디자인지원기구(TDA)가 추진하는 행사다. 다년간 서울, 수원, 경기도 광주, 시흥, 파주, 일본의 도쿄, 나리타, 마츠모토, 나가노, 오부세 등에서, 우리나라와 일본의 도시디자인전문가들이 모여 미래 도시디자인 방향에 대한 토론을 지속해왔다.

올해는 인천시와 (사)더나은도시디자인포럼이 공동 주최해 인천시가 지닌 인프라와 잠재력, 이를 활용한 계획들을 소개하고, 한일 전문가와 함께 인천시가 당면한 과제와 해결방안, 미래의 인천에 대해 논의하는 장이 마련됐다.

이번 교류회에서는 고은정 시 도시디자인과장이 ‘인천의 더 나은 미래’를 주제로 기조 강연을, 스즈키 순지 시바우라 공업대학 교수가 신주쿠구 가구라자카 지구 경관 마을 사례에 대해 주제 발표했다.

이용구 인천재능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쿠니요시 나오키 일본 도시디자인지원기구 회장(전 요코하마 도시디자인과장)을 비롯한 일본 측 전문가 패널, 이석현 (사)더나은도시디자인포럼 회장(중앙대학교 교수), 곽동화 인천대학교 교수 등 한국 측 전문가들이 인천의 도시디자인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고은정 시 도시디자인과장은 “한일 도시디자인 전문가 교류회를 통해 인천의 선진 도시디자인 정책과 사례들을 널리 홍보하고, 뉴홍콩 시티, 제물포르네상스 외 인천이 당면한 과제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였다”며, “앞으로도 국제적으로 인천을 알리고, 전문가들을 초청해 인천의 발전을 논의하는 장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붙임> 행사사진

붙임

행사 사진





